

언어구분 KOR

논문구분 원저/구연

논문분야 척추

논문제목 나이, 성별, 척추 분절에 따른 경추부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

영문제목 **Facet joint degeneration of cervical spine with the regard to age, gender and the disc level**

발 표 자 오종병

책임저자 박문수

저 자 박문수, 오종병, 김석우, 김용찬, 송경원, 이진영, 장호근, 김영우, 정국진, 신재혁, 서은민, 김인성

기 관 명 한림대학교 의과대학

서론 : 경추부 퇴행성 후관절증이 경추통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된다. 일반적으로 퇴행성 후관절증의 방사선학적 진단 시 전산화 단층촬영이 가장 정확하다. 경추부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단순방사선 검사를 이용하여 평가한 보고는 있으나, CT 을 이용하여 평가한 보고는 없었다.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경추부 퇴행성 후관절증의 호발 부위 및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분석하고, 이를 나이, 성별, 척추 분절에 따라 비교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경추부 퇴행성 후관절증이 경추통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된다. 일반적으로 퇴행성 후관절증의 방사선학적 진단 시 전산화 단층촬영이 가장 정확하다. 경추부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단순방사선 검사를 이용하여 평가한 보고는 있으나, CT 을 이용하여 평가한 보고는 없었다.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경추부 퇴행성 후관절증의 호발 부위 및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분석하고, 이를 나이, 성별, 척추 분절에 따라 비교하고자 하였다.

결과 : 50대 이상에서 C2/3, C3/4, C4/5가 심하게 발생하며 40대에서는 C2/3, C3/4, C4/5, C5/6, C6/7의 발생이 비슷하였다. 70대 이상에서 좌측 경추부 후관절증이 심하게 발생하며 40대, 50대, 60대에서는 좌, 우측의 발생이 비슷하였다. 여자보다 남자가 경추부 후관절증이 더 심하였다. 60대, 70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경추부 후관절증이 심하였으나, 40대, 50대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다. C2/3, C3/4, C4/5, C5/6의 척추 분절에서 C6/7보다 퇴행성 변화가 더 두드러졌다. C2/3, C3/4, C4/5, C5/6에서는 grade 3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았고, C6/7에서는 grade 2의 퇴행성 변화가 많았다.

결론 : 경추부 후관절증의 호발 부위 및 퇴행성 변화 정도는 나이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, 이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 나이 및 성별에 따른 경추부 후관절증의 임상 소견 및 방사선학적 소견과의 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.

acknowledgment :

경추부, 후관절, 퇴행성 변화